

(이)나

~이나; ~이나 (많은 양); ~든지

명사 사이의 선택을 나타냅니다. 같은 조사가 예상보다 많은 양에 대한 놀라움도 나타내고, '언제나, 누구나' 같은 말도 만듭니다.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세 가지 용법이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연결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받침 없음	나	커피나 차
받침 있음	이나	밥이나 빵
숫자 뒤	많은 양	세 시간이나 기다렸어요
의문사	고정 형태	언제나, 누구나, 어디나
막연한 제안	~같은 것	영화나 볼까요?
동사를 연결할 때는	-거나를 사용	먹거나 마시거나 — 먹나(×)

■ 언제 쓰나요

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명사 사이의 선택: 커피나 차를 마셔요.입니다. 첫 번째 선택지에 붙이고 두 번째는 그대로 둡니다. '어느 쪽이든 괜찮다'는 느낌이 담겨 있어서 제안할 때 특히 잘 어울립니다.

숫자 뒤에서는 뜻이 바뀌어 많은 양을 나타내며, 예상보다 많다는 느낌을 줍니다. 세 시간이나 기다렸어요는 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뜻입니다. 반대로 세 시간밖에 안 기다렸어요라고 하면 같은 세 시간에 대해 정반대의 반응이 됩니다.

의문사에 붙으면 '~든지'의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: 언제나 (항상), 어디나 (어디든지), 누구나 (누구든지), 아무거나 (무엇이든지). 하나의 단어로 통째로 익혀 두면 좋습니다.

■ 예문

- 1 커피나 차 중에서 골라 주세요.
- 2 시간이 있으면 영화나 볼까요?
- 3 두 시간이나 걸렸어요.
- 4 이거나 저거나 다 좋아요.
- 5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.
- 6 주스나 한 잔 주세요.

■ 비교

-거나

(이)나는 명사를 연결하고, -거나는 동사와 형용사를 연결합니다. 둘 다 '선택'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커피나 차를 마셔요. (커피 또는 차) /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셔요. (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신다)

아니면

아니면은 두 개의 완전한 문장 사이에 오는 접속 부사입니다. 조사가 아니므로 명사에 붙지 않습니다.

커피나 차 주세요. / 커피 주세요. 아니면 차도 괜찮아요.

밖에

둘 다 수량에 대한 반응이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. (이)나는 예상보다 많다는 뜻이고, 밖에는 부정과 함께 쓰여 예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.

세 시간이나 잤어요. (세 시간이나 푹 잤다) /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 (세 시간밖에 못 잤다)

■ 주의

- ✗ 커피이나 차를 마셔요.
- 커피나 차를 마셔요.
커피는 받침 없이 끝나므로 나만 붙입니다. 이나는 밥이나처럼 받침 뒤에 씁니다.
- ✗ 먹나 마시나 하세요.
- 먹거나 마시거나 하세요.
행동 사이의 선택을 나타낼 때는 동사 어간에 -거나를 붙입니다. (이)나는 명사에만 붙습니다.
- ✗ 세 시간이나 못 잤어요.
-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.
(이)나는 양이 많다는 뜻이므로 부정적인 불평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'겨우 세 시간'이라는 뜻이라면 밖에를 쓰세요.